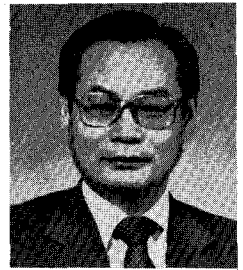


기술개발에 전력투구하면 수출산업 가능



한 인 규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교수
(전 전국농대학장협의회 회장)
본지 초대 편집위원장

우리나라의 농산물가격을 국제 농산물가격과 비교하기 위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쌀 6.0배, 콩 5.5배, 참깨 11.4배, 사과 2.1배, 감귤과 포도 2.0배, 복숭아와 단감 1.5배, 쇠고기는 2.7배인데 비하여,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등은 1.2배 가량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자료를 놓고 보면 쌀, 콩, 참깨, 쇠고기 같은 농산물은 수입개방의 물결을 막고 자급자족의 형태를 유지하기만 해도 잘하는 품목인데 비하여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같은 축산물은 조금만 잘해 나가면 오히려 외국으로 내다 팔 수 있는 농산물이 될 수 있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도 수입은 막아낼 수 있는 안전한 농산물이라 할 것이다.

과수와 채소 산물도 지금까지는 국제경쟁력이 있다고 판단, 동남아시아 몇 나라에서 시험 수출을

한 일도 있었으나 지난 추석에 사과와 배 등 과수 산물의 값이 폭등하는 바람에 이들 농산물의 국제 경쟁력은 사실상 상실될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를 낳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UR 협상이 타결된 이후에도 우리 농산물 가운데 위에서 열거한 몇가지 축산물은 자급자족은 물론 교역품목화(수출)할 수 있는 전망이 밝은 품목이어서 UR 협상 피해를 직접적으로 막아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최근에 모신문사가 우리나라 양축농가들이 느끼고 있는 국내 축산업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조사 분석하여 양축농가들의 소득증대와 권익보호를 위하여 당국은 어떠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고 양축농가 자신들은 어떠한 자구책을 마련해야 할 것인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640개 양축농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응답결과를 보고 먼저

느낀 것은 양축가들의 무관심스러운 자세이다. 총 640개 농가중 167개 농가가 응답함으로써 경 26%의 양축농가만이 이 신문사의 우편설문에 응답하였다는 것은 양축농가의 의견을 대표하였다고 말하기 어려운 낮은 회수율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다음으로 느낀 것은 설문문의 내용이 주로 정책지향적인 것이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양축가 자신이 담당해야 할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사표현이 없이 주로 정부당국이 어떻게 해 줘야 한다는 문제만 지적한 듯한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는 것이다.

이 조사에서 축산농가들은 ① 정부가 축산물 가격 지지정책을 우선적으로 다루어줘야 한다. ② 배합사료값과 축산물기자재값을 인하시켜야 한다. ③ 간편하고 경제적인 가축 분뇨 폐수처리 시설을 개발 보급하는 농촌환경 개선사업에 정부가 앞장 서야 한다. ④ 쇠고기를 비롯한 외국의 값싼 축산물의 수입은 정부가 조절해 줘야 한다. ⑤ 농림수산부 축산국을 비롯한 관련 정부기관은 축산 장기 발전대책을 더욱 강력히 추진 해야 한다. ⑥ 현재 실시 중인 축산물 가격 안정대는 현실성 있게 개정되어야 한다. ⑦ 농촌 노동력의 품귀현상과 고임금으로 인하여 파생되고 있는 축산물 생산비 인상요인과 목장경영난을 해소시켜 주어야 한다. ⑧ 축산농민의 떨어진 사기를 진작시키고 심은 대로 거둘 수 있다는 생산의욕의 고취가 있어야 한다. ⑨ 배합사료 및 축산기자재에 대해서 부가세를 철폐함으로써 축산물가격의 국제경쟁력을 형성해 줘야 한다. ⑩ 축산물 유통시설의 근대화 및 유통구조의 획기적인 개선으로 생산자의 이익을 보장하라는 등의 순으로 열가지 문제점을 주로 축정당국이 정책적으로 해결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한마디로 요약해서 표현하면 외국의 값싼 축산물의 수입은 될 수 있는대로 막아내고 국내 축산업은 잘 되도록 최대한 지원해 줘야 한다는, 어떻게 보면 지극히 당연하고 소박한 주장인 것이다.

축정당국은 이러한 양축농가들의 절실한 요구에 귀를 기울이고 할 수 있는 지원을 아끼지 않음으로써 오늘 우리 국민에게 고급식품을 부족없이 공급할수 있어야 함은 물론 멀지 않은 장래에 남북통일이 되는 날에는 북녘땅에 있는 우리 동포들까지도 넉넉하게 먹일 수 있도록 생산기반을 유지·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양축농가들의 요구를 들어 줌으로써 우리나라 축산물이 비로소 국제 경쟁력을 가지게 되고 나아가서 교역품목화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농산물 수출입 개방화시대에 있어서 양축농민들의 권익을 보호해 주려고 한다면 당국은 대체로 다음의 세가지 사항에 유념해야 할 것이다.

첫째,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도입하는 원료사료나 축산기자재에 대해서는 관세를 감면해 주고 배합사료에 부과하고 있는 부가세 영세율 적용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아울러 축산물의 과다 수입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기술적 장치를 마련하여 물가안정과 소비자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량만 도입함으로써 국내생산을 보호해 줘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일들을 성과있게 추진하는데는 별다른 예산이 소요되지 않는 대신 행정당국의 적극적인 신념과 업무 추진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믿는다.

둘째, 이 항목에서 말하는 대책을 추진하는데는 상당한 예산투자가 필요하다. 축산물 가격 지지책의 일환으로써 비축시설을 확충해 줘야 함은 물론 유통구조의 근대화를 통하여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함께 보장해 주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물론 농수산물유통공사와 축협 등이 이러한 기능의 근대화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아직은 부족한 산지 도축장 시설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되기를 바란다. 이러한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려면 정부가 축협을 통하여 과감하게 투자해야 할 것으로 믿는다. 또한 간편한 목장폐수 처리시설의 보급을 위하여 자금조달 능력이 약한 양축가에게 현실성 있는 용

자를 해 줘야 할 것이다. 이러한 지원이 성과 있게 추진되려면 축정당국은 향후 10년간 매년 7,000억 원 가량의 예산을 지속적으로 투자 해야 할 것이다.

셋째로는 첨단 농업 기술 및 축산기술 개발의 획기적인 촉진을 들 수 있다. 세계 농업이 점차 땅 중심에서 기술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고 우리나라의 농업도 단순한 식량생산업에서 환경보전산업으로, 수동식 농업에서 기계화, 자동화, 전산화 및 시설화를 이룩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일본의 경우 농업생명과학산업이 21세기에는 자동차 산업을 능가할 것으로 추정하고 전통적 축산물 생산연구에서 축산공학, 생명과학 및 신소재 개발 연구의 종합적 첨단적 기술개발 형태로 변신하고 있는 중임을 주의깊게 살펴야 할 것이다. 우리 축산업이 농산물 개방화 압력을 이기고 오히려 수출 산업화하려면 먼저 기술개발에 전력투구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바이다. 우선 시급한 기술을 개발하려면 적어도 지금의 연구개발비의 두배에 달하는 연간 1,000억원 규모를 투자하여 ① 저렴한 목장폐수처리 시설의 개발 ② 농촌인력의 품귀와 고령화에 따른 가축사육시설의 기계화 및 자동화를 위한 연구개발 ③ 축산물의 운송, 저장, 가공기술의 개발 ④ 생산성 향상과 사양관리 기술의 혁신을 통한 축산물의 국제경쟁력 형성을 위한 기술 등이 하루빨리 개발·보급되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장기적으로 이렇게 지원해 주면 우리나라 축산물 생산비는 20~30% 가량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양축농가 자신들도 가축의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목장업무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가축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뿐만 아니라 사양관리 기술을 개선하고 질병방지대책을 과학화함으로써 생산성 감퇴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양관리 시스템과 축사시설의 개선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다. 사료의 보관상이나 급여시에 일어날 수 있

는 허실 또한 방지해 주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목장에서 양축가 자신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축산물 생산비의 10~20%를 절감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국내외 여건이 어려워질수록 더욱 열심히 해 보겠다는 강렬한 생산의지를 가질때 비로소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바이다. 우리 축산업의 살길은 생산성 향상과 원가절감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는 것을 뒤늦게나마 깨달아야 할 것이다.

이리하여 정부의 정책적 배려와 양축농가의 노력이 어우러져서 우리나라 축산물 생산비의 30~40% 가량이 절감된다고 하면 우리나라 축산업은 UR 협상 타결 이후에도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오히려 안정적으로 성장·발전할 수 있는 분야가 될 것이 분명하다.

우리나라 축산업은 ① 국내축산물 소비량이 계속 증가하여 육류가 30kg로, 우유가 70kg 수준으로, 계란이 250개 수준으로 늘어나고 ② 머지 않은 장래에 남북 직접 교역이 이루어지거나 통일이 이루어져서 북한 동포들에게 축산물을 공급하게 되고 ③ 식량생산이 부족한 소련, 중국 등 동북아시아 여러나라에 축산물을 수출하는 등 여건의 변화가 오게 되면 현재의 가축 가금 사육두수는 2000년에 이르면 거의 지금의 2배로 증가되어야 하고 배합사료의 생산량도 1,500만톤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바이다. 그리고 위에서 열거한 축산기술의 개발로 축산업의 첨단 산업화가 비로소 이루어지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축산기술이 다른 분야보다 먼저 세계 선진 과학 7개국(G7)의 일원으로 진입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는 바이다. **양계**

